

연합군 3차 공습... 카다피 아들 사망설

연일 파상적 공세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트리폴리까지 확대

서방 연합군이 21일 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무아마트 카다피 국가 원수의 고향인 시르테 등지에 대한 3차 공습에 착수했다.

미군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리비아 비행금지구역의 실현 범위가 조만간 수도 트리폴리까지 확대돼 1000km에 달하는 지역이 영향권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트리폴리에서 대공포가 연이어 발사된 뒤 남부의 카다피 관저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등 최소 2차례의 폭음이 도시를 뒤흔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리비아 국영TV도 이날 밤 수도 트리폴리 내 여러 곳이 '실자

군 적(crusader enemy)'의 새로운 공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공격이 리비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범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뱅가지 동부에 있는 리비아군 레이더기지 2곳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21일 보도했다.

트리폴리 동쪽 10km 지점에 있는 리비아 해군기지도 이날 밤 폭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리비아 정부의 무사 이브라힘 대변인은 여러 항공과 카다피의 고향인 시르테의 민간공항 등이 공습을 받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습의 목표물 중에는 카다피가 속한 부족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의 소도시 세브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단행된 공습으로 무아마트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아들 중 한 명인 카미스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아랍권 언론매체인 아라비안 비즈니스 뉴스는 웹사이트에서 카다피의 관저인 바브 알-아지자야 요새가 폭격당했을 때 카미스가 화상을 입어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으나, 리비아 정부는 이곳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사망설을 부인했다. 카다피의 6남 카미스가 이끄는 정예부대인 민병대 제32여단은 속칭 '카미스 여

단'으로 불리며, 반정부 세력에 대한 공격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왔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연합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2차 공습에서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카다피의 관저 단지에 있는 지휘 통제본부 등을 파괴했다.

이와 관련 미군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카터 험 사령관은 이날 화상을 통해 미국 국방부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연합군의 작전 능력을 증강해, 비행금지구역 이행 범위를 곧 르베가와 미스라타로 확대하고, 다음에는 트리폴리까지 아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험 사령관은 "오늘 작전은 비행금지구역을 뱅가지 남쪽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어 서쪽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전국광역시장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김황식 총리, 엄홍철 대전광역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윤석윤 인천행정부시장. /연합뉴스

姜시장, 도시재생사업 정부 지원 촉구

강운태 광주시장이 22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정세상태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강 시장은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광역시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소방도 도로를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광역시의 도심재생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김 총리는 공감함을 표하며 관계부처에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또 이날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법인, 개인 가정 등에서 산만한 유아교육의 체계화 및 일원화, 유아교사에 대한 정부지원, 지방세

감면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및 협의의 사전의무화와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김 총리가 올 초 전국광역시장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14건에 대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직접 광역시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살레 예멘 대통령 연내 퇴진”

야권과 평화적 정권이양 방안 논의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이 평화적 정권이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예멘 정부 소식통과 미국 관리들을 인용, CNN이 22일 보도했다.

살레 대통령측은 이를 통해 즉각적인 퇴진 대신 가급적 올해말까지 대통령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멘 관리는 살레 대통령이 현재 5가지 방안에 합의한 상태라고 확인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5가지 방안은 ▲살레 대통령이 올해 안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국민들이 두려움없이 시위를 할 수 있고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사태를 조사를 위원회를 구성하며 ▲사망하거나 부상한 시위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살레 대통령의 가족이 군부 등의 주요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포함해 정부는 헌법 및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AP통신도 의명을 요구한 한 예멘 야당 의원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 방안을 놓고 살레 대통령과 야권이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는 보도했다.

이 야당 의원은 현재 양측 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 측에 48시간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내건설사 리비아현장 폭도 난입

리비아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리비아 공사 현장에 현지인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2일 외교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리비아 트리폴리의 모 대형건설사 공사 현장에 총기로 무장한 현지인 4명이 들어닥쳤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있던 차량을 탈취하려 했으나 자동차 열쇠가 없어 차량문이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같은 날 트리폴리의 또 다른 국내 건설사 사무실에도 무장강도 3명이 침입해 미화 2500달러를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다피 지지자들에게 총기가 지급되면서 리비아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무장강도들의 목적은 돈인 만큼 설불리 저항하기보다는 금품을 내주는 편이 오히려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 118명 가운데 5명이 지난 20일과 21일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이집트·튀니지·몰타 등으로 대피했으며, 이날도 뱅가지에서 한인 근로자 1명이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역발전위원장 홍철씨 유력



공석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 위원장에 홍철(66) 대구경북위원장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날 “공석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홍철 대구경북위원장이 내정될 것”이라

고 말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대통령 경제비서관, 건설교통부 차관부, 인천대 총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정부, 北에 백두산 화산 민간협업의 제안

정부는 22일 백두산 화산문제를 협의하자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 민간전문가 간 협의를 북측에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백두산 화산 활동과 관련,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따라 우선 전문가 간 협의를 오는 29일 우리 측 지역인 경기도 문산에서 갖자”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

전통문은 기상청장 명의로 관문점 연락관채널(직접자채널)을 통해 북측 지진국장 앞으로 전달됐다.

이는 북측의 당국 간 협의 제안에 우리 정부가 민간 전문가 차원의 협의를 제의한 것이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반도 지각변동후 복귀중

일본 대지진 이후 동쪽으로 1~5cm 움직였던 우리나라의 지각이 제자리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52개 GPS 위성기준점과 주변국 15개소(중국 5개, 러시아 1개, 일본 9개)를 이용해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지진에 의한

한반도 지각변동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52개의 위성기준점은 중국(상하이, 쿤밍)을 기준으로 지진발생 3일 후인 14일까지 동쪽으로 1~5cm 이

동했으나 15일 이후 대부분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추세다.

특히 마라도의 경우 지진발생 직후 약 1cm가 움직였다가 16일 기준으로 원래 위치의 90%까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원은 그러나 지각이 다시 원상 복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연초제조장

일곡지구

롯데칠성

고가물라

해태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청소 및 건축물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청소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소독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